

# 안정적이고 차질없는 전력공급을

韓國電力公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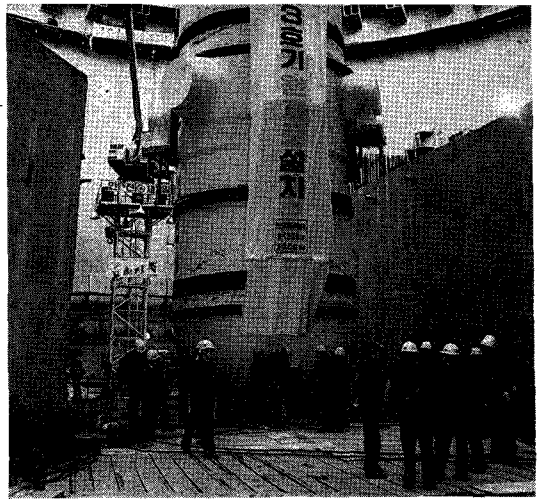
1992년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분야의 주요사업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원자력사업환경을 보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키 위한 원전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증대되고 있으며 전원개발계획

에 따른 원전건설의 차질없는 추진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체제에 대비를 위한 원자력기술의 자립 및 선진화 등 수행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겠다. 더우기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전원입지확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확보문제와 함께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확보필요성 등으로 인해 매우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년도 최대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어떻게 차질없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원자력발전의 역할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전 운영의 경우 작년 84.4%라는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리 1호기의 잦은 고장정지로 인해 국민적 신뢰에 악영향을 미쳤던 점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불시정지근절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발전소불시정지를 호기당 평균 1건 이하로 억제시키기 위하여 전자제어설비 등 취약, 예민설비의 점검보강을 철저히 하며 전원전에 대하여 예방정비활동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지원체제의 강화를 통하여 취약분야의 조기발견과 해결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원전의 운전근무체제를 6조 3교대로 강화하고 운전, 정비요원들에 대한 환경정무교육을 보다 철저히 하는 등 인적실수근절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장기전원개발계획에 의한 원전건설의 차질없는 추진도 90년대중반 이후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작년에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주요기기설치를 완료한 영광 3, 4호기는 올해 시운전업무를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시운전전원가압 및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조기발행함으로써 금년말에 71.71%의 공정률을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착공한 월성 2호기는 원자로건설허가취득과 함께 구조물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올진 3, 4호기는 5월부터 기초굴착공사를 착공하는 한편 월성 3, 4호기도 금년중 계약체결을 통해 12월부터 현장공사를 착



수할 계획으로 있다. 원전건설의 경제성제고를 위해 기초콘크리트타설부터 준공까지 현재 64개월로 되어 있는 표준원전건설공기를 54개월을 목표로 하여 올진 3, 4호기부터 2개월씩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기술자립의 지속적 추진으로 2001년 원자력기술선진국수준에 진입하기 위한 목표 아래 원자력중장기기술개발계획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며 차세대 원자로기술개발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87년 수립된 계획에 의한 원전건설기술자립은 91% 달성을 목표로 하여 각사의 기술자립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계수에 의한 자립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능력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원자력산업계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국민적 지지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의 강화를 통해 원자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잘못 곡해된 시각을 바로 잡아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물론 이러한 대국민홍보활동에는 원전의 안전운영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원전건설 및 시운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와 시험을 통한 품질관리강화로 최고의 품질수준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며 운영단계에서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는 종사자의 안전의식확산을 위한 방안마련 및 인적행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의 재정립 등 원전안전문화정착을 위한 대책수립과 함께 안전관리체제의 고도화를 위한 노력도 적극전개할 계획이다.